

동물 대체시험 인증기관 설립

전남, 166억원 투자 2016년 완공 ... 화장품·화학 유해성 평가

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이(GLP)가 설립된다.

전라남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화순 소재 생물의약품산업단지에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월23일 발표했다.

GLP는 부지 1만3000㎡, 전제면적 4000㎡로 2016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1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는 화장품, 화학제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동물을 통해 시험하지 않고 세포, 미생물, 계란, 식물 등을 이용해 시험한 뒤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피부자극시험은 기존에는 토끼 피부를 이용했다면 센터에서는 인공피부를 이용해 동물시험에 대한 윤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센터에서는 국내 동물대체시험 표준절차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품의 시험, 평가, 인증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의 지원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동물대체시험 관련 산업분야에서 5년간 생산유발 4094억원, 수출유발 948억원, 168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순주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환경규제는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으로 동물대체실험은 정부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화장품, 화학물질 등 관련 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독자적인 동물대체시험이 어려운 상태여서 센터 구축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4>